

2025년 7월 14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 KIWOOM WEEKLY

## KIWOOM WEEKLY

### 코스피 3,200pt 돌파의 외생 변수들

한국 증시는 1) 트럼프의 상호관세, 2) 미국의 6월 CPI, 소매판매, 3) 월러 연준 이사,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골드만 삭스, ASML, 넷플릭스 등 미국 주요 기업 실적, 5) 국내 정부의 증시 활성화 로드맵 관련 뉴스플로우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3,200pt 진입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080~3,220pt).

주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만 유발할 뿐 지수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 관세 뉴스 이외에도 미국 6월 CPI, 소매판매 등 관세가 실제 여파를 가능할 수 있는 하드 데이터 결과도 중요. 이번주 미국도 골드만삭스, JP모건, 넷플릭스, ASML 등 금융, 테크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분기 실적시즌에 들어갈 예정. 관세가 각 사업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향후 가이던스를 어느정도 보수적으로 제시하는지가 관건. 국내 증시에 한정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상법개정안 통과 이외에도 거버넌스 개선의 후속 로드맵 구체화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1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 중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은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및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에 대한 경계감 짙어지며 보합권으로 출발. 이후 상호관세 유예기간 8/1까지로 연장, 엔비디아 등 반도체 상승 속 미증시 사상최고치 경신 속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고유 거버넌스 개혁 정책 기대감 지속되며 양 지수는 상승 마감 (KOSPI +3.98%, KOSDAQ +3.18%)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주들의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주가 반등에도 트럼프의 상호관세 및 삼성전자 잠정실적 경계 심리 등이 지수 상단을 제한하며 소폭 상승 출발. 이후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8월 1일까지 주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TACO 트레이딩 유인 강화되며 상승 전환. Risk-on 랠리 지속되며 미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내 증시도 조선, 방산 등 주 초반 기존 주도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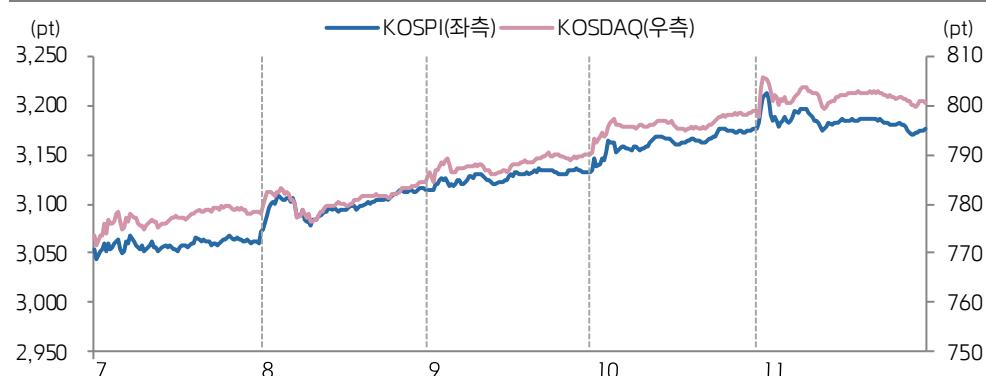
한편, 대외 불확실성 해소 국면 속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거버넌스 개혁 정책 추진 기대감도 지속되며 국내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 특히,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 지주 등 저 PBR 테마의 상승도 지속되는 흐름 연출.

주 후반 트럼프의 브라질 50%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실적시즌 도래하며 관세보다는 AI에 초점이 맞춰지며 엔비디아 상승 속 사상 최고치 경신. 국내 증시도 마지막 거래일 약 3년 만에 장중 3,200pt 돌파. 업종 측면에서 기존 주도주가 견조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소외주 혹은 소외업종이었던 삼성전자, 2차전지, 헬스케어 등으로의 수급 순환매 연출.

업종별로 증권(+16.25%), 보험(+9.98%), 금융(+8.77%), 음식료/담배(+6.05%), 금속(+5.5%)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0.6%), 전기/가스(+0.61%), 부동산(+0.81%), 오락/문화(+1.25%), 통신(+1.8%)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5,373억원)은 금융(+3,159억원), 제조(+2,200억원), 제약(+1,358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2,004억원) 금융(+4,527억원), 금속(+1,534억원), 증권(+925억원), 보험(+536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7월 14일	월	중국	수출 (YoY)	6 월	5.2%	4.8%
			수입 (YoY)	6 월	1.9%	-3.4%
7월 15일	화	중국	GDP 성장률 (YoY)	2분기	5.1%	5.4%
			고정자산투자 (YoY)	6 월	3.6%	3.7%
			소매판매 (YoY)	6 월	5.1%	6.4%
		유로존	ZEW 서비스 예상	7 월	-	35.3
		미국	CPI (YoY)	6 월	2.6%	2.4%
			CPI (MoM)	6 월	0.3%	0.1%
			근원 CPI (YoY)	6 월	2.9%	2.8%
			근원 CPI (MoM)	6 월	0.3%	0.1%
			뉴욕 제조업지수	7 월	-10.0	-16.0
		실적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씨티그룹			
		발언	보우먼 미연준이사, 바 미연준 부의장			
7월 16일	수	미국	PPI (YoY)	6 월	2.5%	2.6%
			PPI (MoM)	6 월	0.2%	0.1%
			산업생산 (MoM)	6 월	0.1%	-0.2%
		실적	뱅크오브아메리카, ASML,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공개	베이지북			
		발언	델러스·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7월 17일	목	미국	소매판매 (MoM)	6 월	0.1%	-0.9%
			소매판매_자동차 및 가스제외 (MoM)	6 월	0.4%	-0.1%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7 월	-0.5	-4
			NAHB 주택시장지수	7 월	33	32
		실적	TSMC, GE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우리금융지주			
		발언	뉴욕 연은 총재, 쿠글러·쿡 미연준이사			
7월 18일	금	일본	CPI (YoY)	6 월	3.4%	3.5%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7 월	61.4	60.7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잠정치)	7 월	-	58.1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1년, 잠정치)	7 월	-	5.0%
		실적	넷플릭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찰스슈왑			
		예정	미국 옵션만기일			
		발언	월러 미연준이사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트럼프의 상호관세 행보, 2) 미국의 6월 CPI, 소매판매 등 하드데이터, 3) 월러 연준 이사,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골드만삭스, ASML, 넷플릭스 등 미국 주요 기업 실적, 5) 국내 증시활성화 로드맵 관련 뉴스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3,200pt 진입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080~3,220pt).

11일(금) 미국 증시는 단기 고점 부담 속 트럼프 관세 노이즈, 2분기 실적시즌 대기심리 등이 차익실현 유인을 제공함에 따라 하락 마감(다우 -0.6%, S&P500 -0.3%, 나스닥 -0.2%).

7월 8일 이후 트럼프의 본격적인 상호관세 행보가 재차 전개되고 있는 상황. 이날 미국 증시 조정의 명분은 캐나다에게 3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그 외 국가들에게 15~20% 관세 부과 예정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서 주로 기인. 이어 주말 중 트럼프는 EU와 멕시코에게 30%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한 상황. 타이밍 상 공교롭게도 6월 미국의 관세 수입(217억달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상태. 이는 트럼프에게 관세 행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인 이자 증시에서는 추세 훼손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하지만 아직 그 영향이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 보편관세(10%) 뿐만 아니라 추가 상호관세까지 현실화될 시, 관세 수입 증가보다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 위축 등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 또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유예한 것도 협상을 통해 관세율 하향 조정 혹은 유예 시점 연장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EU와 멕시코가 미국의 30%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보다는 협상 및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할 것이라 언급한 점도 같은 맥락. 결국 주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만 유발할 뿐 지수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

관세 뉴스 이외에도 미국 6월 CPI, 소매판매 등 관세가 실제 여파를 가능할 수 있는 하드 데이터가 주중 대기하고 있음.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6월 헤드라인 CPI(2.6%YoY vs 5월 2.4%), 근원 CPI(2.9% vs 5월 2.8%), 소매판매(0.1%MoM vs -0.9%) 등 이들 하드데이터 간 엇갈리게 형성된 상황. 일단 증시 참여자들은 소매판매보다 CPI 데이터에 무게 중심을 더 두고 가는 것이 타당. 트럼프의 파월 의장 비난 수위 강화, 7월 인하 소수 의견 등 연준 내 분열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 6월 CP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문제될 것 없지만, 쇼크로 나올 시 “관세 충격 심화 → 연준 인하 기대감 후퇴 → 금리 상승 → 증시 단기 조정”的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 될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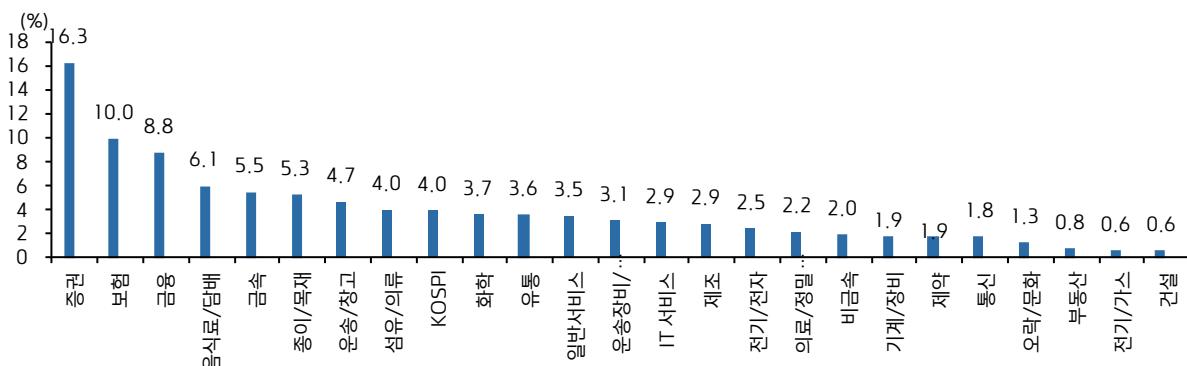
한편, 국내 증시에 한정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지속 확대시키는 뉴스플로우 등장 여부도 중요. 그렇지만 7월 중순으로 접어든 현 시점, 시장은 실적 민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판단. 지난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등 잠정 실적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관세 민감도가 높은 기업들은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된 상황. 이번주 미국도 골드만삭스, JP모건, 넷플릭스, ASML 등 금융, 테크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분기 실적시즌에 들어갈 예정. 관세가 각 사업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향후 가이던스를 어느정도 보수적으로 제시하는지가 관건. 사실 M7(미국), 반도체, 조선, 방산(한국) 등 월말 예정된 주도주 실적이 증시에 더 중요하기는 함. 그렇지만 소비자 금융과 직결된 금융주 실적을 통해서도 관세의 충격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실적의 중요도를 높이는 것이 적절.

##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3,175.77	-0.2	4.0	9.2	32.4
대형주	3,158.70	-0.3	3.6	9.2	32.2
중형주	3,565.95	-0.1	5.8	9.1	34.2
소형주	2,636.13	0.2	5.4	6.7	25.9
코스피 200	428.07	-0.1	3.7	9.8	34.7
코스닥	800.47	0.4	3.2	1.8	18.0
대형주	1,868.80	0.2	3.7	1.5	15.8
중형주	726.98	0.3	2.9	2.7	23.3
소형주	2,607.18	0.4	2.5	1.8	17.0
코스닥 150	1,311.62	0.3	4.1	1.8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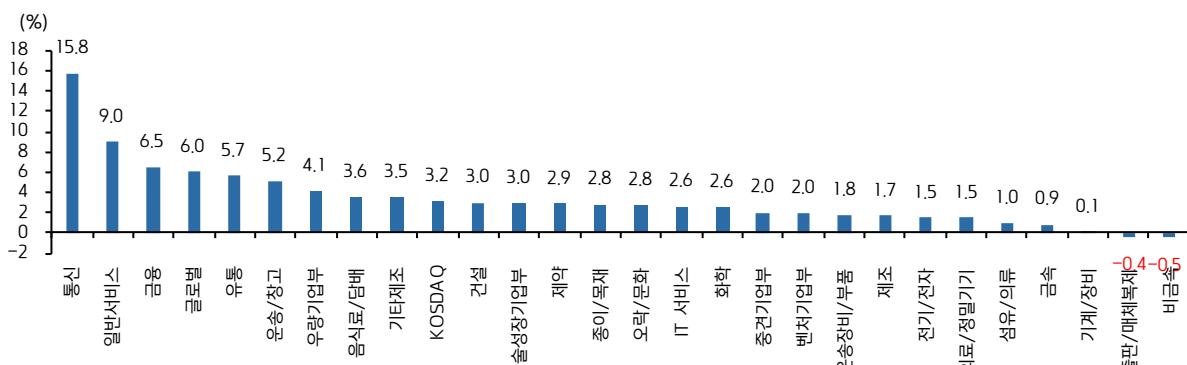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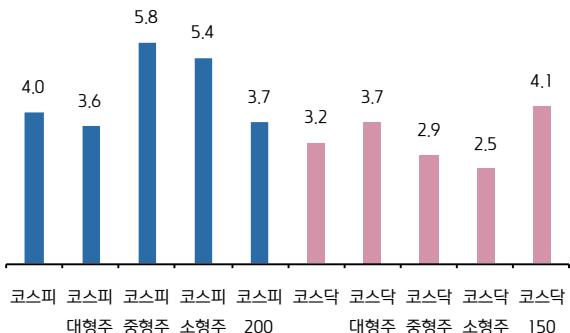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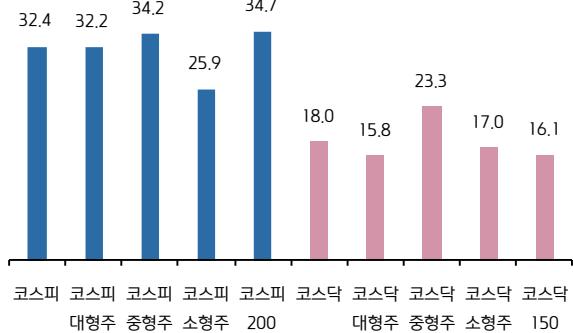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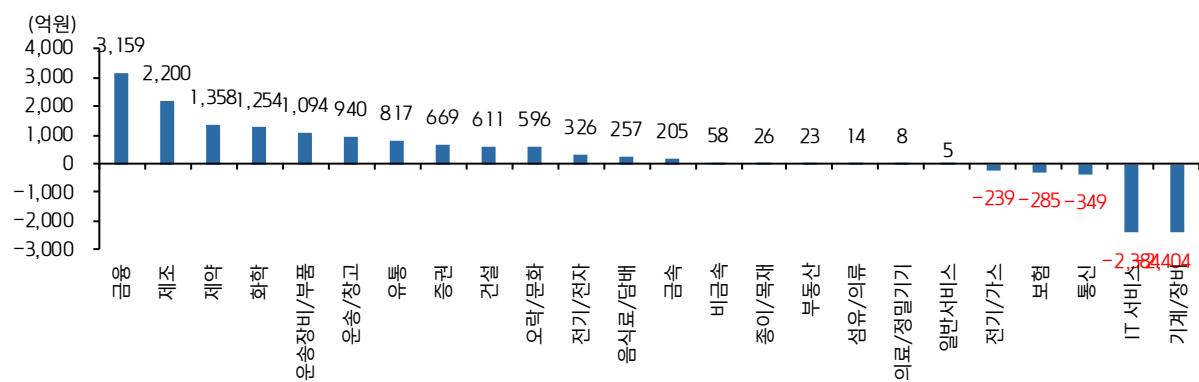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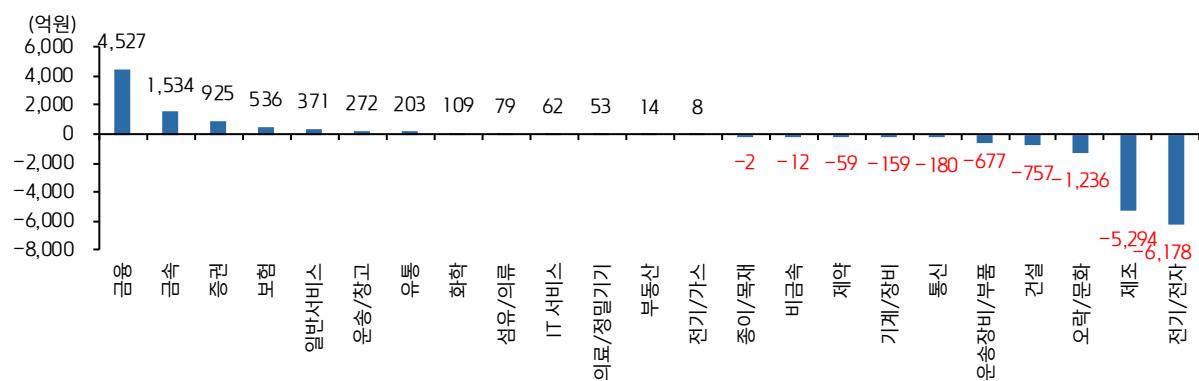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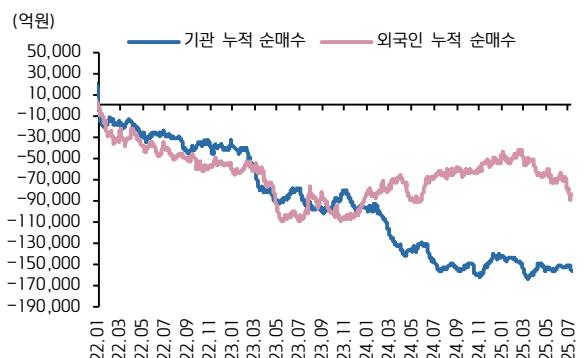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E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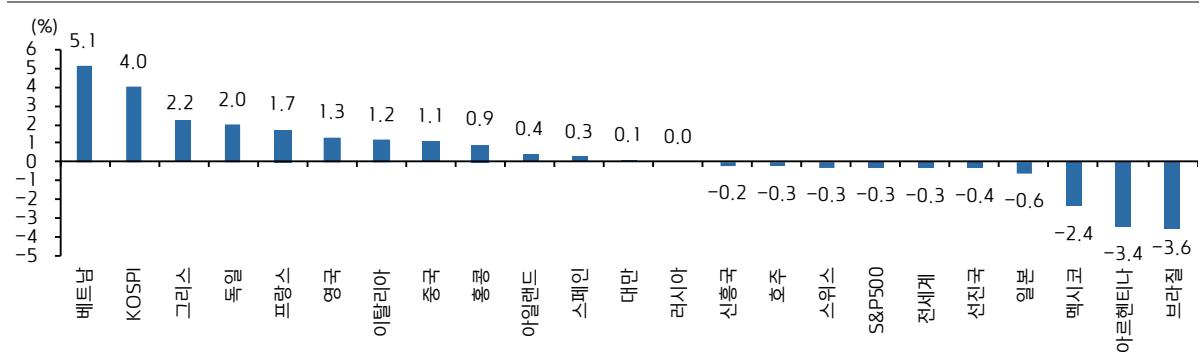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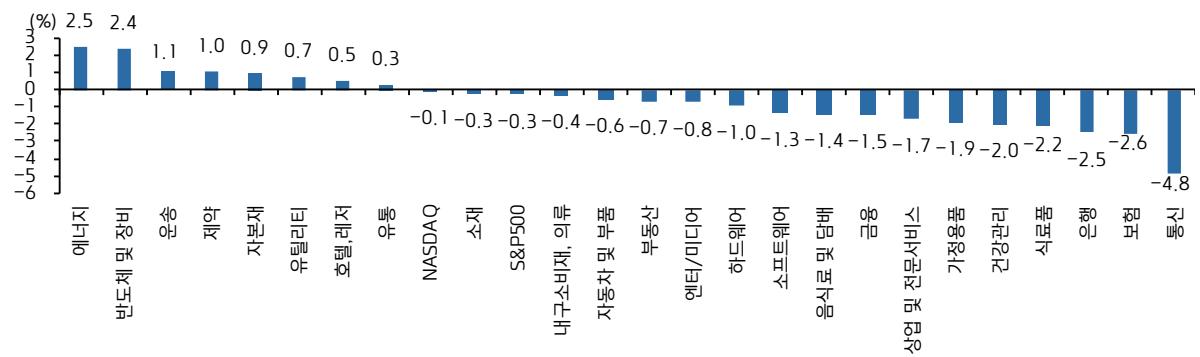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